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동간 제55호 [매월]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5년 9월 1일 발행인: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디자인로드 www.coor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02 5323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

머릿글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심백강
9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이영탁
커버스토리 전남 장성군 군수 김홍식
나의 경영이야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
지자체특강 CMC의식경영컨설팅(주) 본부장 이영철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유머연구원 원장 김진배
회원&연구원소식 / LMI&YOU / 일본 도요타자동차 시찰단
회원칼럼 풍수지리 신안계물형학연구소 원장 박민찬
리더십이야기 / 조순칼럼

표지인물 김홍식 전남 장성군 군수 / 사진 오경근 원장

2005 September

9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담긴 친환경페인트를 만듭니다.



페인트업계 환경마크 최다 보유기업! 삼화페인트

가족의 건강과 함께 자연의 건강까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페인트업계 최초로 친환경품질인증 '우수등급'과 함께 51개의 환경마크 획득으로 앞서가는 삼화페인트!
가장 많은 친환경페인트로 우리의 미래를 해맑게 열어갑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우수등급' 획득

☎ 고객 상담실 1544-5357
www.spi.co.kr / www.paintclub.co.kr

SAMHWA

삼화페인트공업(주)



동북공정의 대처방안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서 고구려가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리고 북한도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므로 역시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한국의 역사주권과 영토주권을 아울러 확보해두기 위한 야심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국책사업이다.

중국이 10여년 전부터 은밀히 추진해 오던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2003년 여름이다. 중앙일보에서 최초로 이 사실을 기사화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초기에 우리 정부가 강력 대처함으로써 동북공정을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역사의식이 빈약한 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다. 그 뒤 일부 시민단체가 강력 항의하여 사태가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자 중국정부는 특사를 보내 구두로 양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을 미봉하고 넘어 갔다.

우리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동북공정은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나 독도영유권 분쟁보다도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의 역사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정부와 국민의 뇌리 속에서는 동북공정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0년 후 중국은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할 것이며, 새로운 패권주의가 대두될 것이다. 그때 중국이 동북공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주권과 영토주권의 중국귀속을 고집할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에게 과연 서 있는가? 지금 동북공정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다시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동북공정의 중단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잠시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만일 중국이 계속 동북공정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서둘러 서북공정을 준비해야 한다. 서북공정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동북지역에 발판을 둔 동이(東夷)민족인데 반하여 한족은 중국의 서북지역에 근거를 둔 서화(西華)민족이다. 한족이 세운 대표적 국가인 한(漢)과 당(唐)이 모두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실이 그것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한족 역사의 시원(始原)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이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족의 시조는 황제 헌원씨다. 사마천은 <사기>에 황제를 한족의 시조로 기술하였고, 오늘날 한족들은 자신들을 황제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동이족의 시조는 황제보다 앞선 시기에 중국의 주인으로 군림한 태호 복희씨다. 공자는 <주역> 계사(繫辭)에서 "복희 시대를 지나 신농씨 시대가 도래하고 신농씨 시대를 지나 황제 시대가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오늘날 중국에는 몽골족, 만족, 묘족, 회족, 장족 등 한족 이외에 5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있지만 결국 동이족과 한족에서 분파된 지류와 지맥에 불과하다. 동양 역사발전의 양대 주역인 동이족과 한족, 두 민족 가운데 동방민족의 뿌리는 과연 누구인가. 다시 말해 어느 민족이 동양 역사의 여명을 열었으며 동양 역사를 추동시킨 원동력인가. 바로 동이족이다.

저 유명한 진시황이 서화계통이 아닌 동이의 시조 소호(少昊)의 자손이며 견이(蚩夷)의 후예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한(漢)을 건국한 유방은 원래 서북출신이 아니라 산둥성(山東省)과 안휘성(安徽省) 접경지대인 패현(沛縣)에서 태어난 동이지역 출신이다. 그리고 당고조(唐高祖) 이연(李淵)은 그 부친은 한족이지만 어머니는 호족(胡族)이었다. 이연의 아내 두황후(竇皇后)는 호족이고,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아내 장손황후(長孫皇后) 또한 호족이었다. 당(唐) 나라 황실은 호족과 한족의 혼혈 종이고 순수한 한족이 아닌데 호족은 다름 아닌 동이에서 갈려나간 한 갈래인 것이다.

따라서 한족의 뿌리가 동이이며, 한족이 아닌 동이민족이 중국의 원주인이라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 그것이 서북공정이다.

우리가 서북공정을 진행하면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추진 중인 동북공정은 결국 무의미하게 된다. 저들은 우리 서북공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동북공정의 포기를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人間)



심백강 원장

1956년생 / 국립대만사범대 중문학과 졸업 / 중국연변대 역사학 박사 / 현대문학 문학평론 추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연구직 전문위원 /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 / 중국연변대 객원교수 / 한반도평화운동본부 공동대표 / 대한상고사학회 부회장 / 국사찾기협회의 부회장 / 충남역사문화원 백제사연구소 소장



9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 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끌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한국사회의 비전

1417회 9월 1일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뱌뷰룸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화, 정보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존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국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집권·단절형 사회에서 분권·네트워킹형 사회 등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 산업,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한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자체의 과밀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기회를 가로막아 국가성장의 잠재력마저 저하시킨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에 이제는 지역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토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선진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지역간 상생을 높여 가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비전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보전,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 발전형태를 짚어보고 한국사회의 비전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美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국민소득과, 조사 제1부 금융재정과
- 美 National Regulatory 연구소 연구원
- 국토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청와대 경제비서실 건설교통담당 비서관
 •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 겸 경제비서관
 •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교통정책연구실장
 • 국토연구원 SOC연구센터 센터장, 민간투자 지원센터 소장
 <상훈> 대통령표창, 국민훈장 모란장
 <저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공저), 근로자 주택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공저)

남북의 통합과 6.15 공동위원회의 역할

1418회 9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뱌뷰룸
백낙청 6.15 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상임대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8.15 민족대축전이 처음으로 양측 당국 대표까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민족분단의 고리를 끊고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다짐하는 한편 그 의의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북한 대표단이 자청한 국립현충원 방문은 북한측이 그 뜻을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관문인 이념을 초월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기에 그 뜻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정보통신혁명으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줬다는 의미 외에 향후 펼쳐질 회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긍정적 기대를 낳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결성된 준비위원회는 이번 8.15 행사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6.15 공동위원회 남측준비위원회 상임대표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백낙청 교수를 초빙하여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6.15 공동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美 브라운대 영문학, 독문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영문학 석사
- 美 하버드대 문학 박사
-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발행인
- 민족문화화재학회의 부회장, 회장

• 근대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 백석문학기념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 美 하버드대 객원 연구교수
 • (재)시민방송 이사장
 • 환경재단 136포럼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상훈> 제2회 심상상, 제1회 대산문학상, 은관문화훈장, 옥조근정훈장 외
 <저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2,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외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을 품어라

1419회 9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재선 중국과학기술협회 교육연합대학 교수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는 개별국가 중 1위 규모로 200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초창기인 90년대 중반에는 신규투자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재투자과 확장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투자비만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 중국경제는 위안화 평가절상, 경기과열 문제 등 여러 변수들이 산재하고 있는데다가 중국정부가 첨단업종과 대규모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진출을 꿈꾸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중국을 이용하지 말고 공생할 방도를 찾아라'라는 주장의 책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을 품어라>를 펴낸 인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과학기술협회 교수로 재직중인 최재선 박사로 저자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1년 중국으로 건너가 14년째 중국 최고위층 관료들에게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과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중국통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국과의 상생을 주장하는 최재선 교수를 초빙하여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 투자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그의 저서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지침을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다.



- 한국외국어대 경영학 석사
- 전북대 경제학 박사
- 美 필라델피아 비블리컬대 신학 석사
- 한국외국어대 강사
-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상경대학 교수
- 중국 북경대 경제대학

초빙교수

- 한중고위경영자과정 주임교수
- 중국 전국시장 훈련센터 특강교수
- (사)동북아과학기술협력재단 주중 수석대표

21세기 브랜드전략

1420회 9월 22일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네트룸
박항기 (주)메타브랜딩 사장

21세기를 맞아 전 세계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브랜드'를 꼽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디지털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업가치의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바뀌면서 기업 무형자산의 핵심인 브랜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한층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정보의 홍수, 상품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제조기술은 언제라도 경쟁사에 추월 당할 수 있지만 한번 뇌리에 박힌 브랜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소비자들끼리 그 많은 상품들을 직접 보고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브랜드는 선택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브랜드는 기업의 제품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막강한 파워를 내뿜고 있다.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직접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야흐로 기업경영을 넘어 브랜드경영의 시대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회사 창립 때부터 '10시 출근'과 '주5일 근무제'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편 경영'을 실천하면서 네이밍 전문회사로 자리잡은 메타브랜딩의 박항기 사장을 초빙하여 21세기 신경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전략에 대해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다.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네이밍 전문회사 이룸고를 대표
- 능률영어사 사외이사
-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 LG인화원, 연세대, 고려대 및 농심, 롯데백화점 등 기업체 강의

- 삼성전자 '하우젠', SK Telecom '모네타', 쌍용자동차 '렉스틴', SK그룹 'OKcashbag', 한국아쿠르트 '산타페', KBS 유아프로그램 '교교마 텔레토비' 외 400여개 브랜드 개발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현황과 과제 -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1421회 9월 29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참여정부가 임기 절반을 보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다수의 전문가와 국민들은 정치개혁에서는 어느 정도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악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경제와 사회 부문에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동시에 추진해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로 대변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빈곤층을 최대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으며,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서민과 중간층의 좌절감, 고용불안,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하던 정부는 오히려 노동계와의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듯 노·정, 노·사의 대격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열린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을 초빙하여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美 보스턴대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장
- 노동부 장관 자문관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한국노사관계학회 수석부회장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

- 美 코넬대 객원연구원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제5, 6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노동부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위원

(저서) 노동경제학, 선진각국의 노조운동과 노사관계, 21세기 한국의 노동 외

제141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8월 11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아시아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한국증권선물시장의 역할과 과제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어 각 증권회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실시간 회사와 연락하면서 주식매매를 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산시스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적 국가적 증권전산시스템 통합이 향후 대세

이처럼 오늘날의 증권시장은 전산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산시스템은 크게 전산기기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나 절차가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전산시스템의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현장거래를 할 때에는 매매소가 여러 곳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산에 제2거래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본도 동경, 오사카, 나고야에 거래소가 있었다. 그런데 점점 전산화되면서 지역마다 있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점차 하나로 통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금년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대통합을 이루었다.

은행 증권 보험은 겸업 추세로

증권시장은 이미 100% 전산화 구축

흔히 증권하면 금융을 생각하고 금융하면 은행을 떠올린다. 과거에는 이러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간에 경계가 확실해 각자의 영역을 확고히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보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그러한 경계가 사라지고 겸업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그 중 증권을 크게 나누면 증권회사들에 의한 증권산업과 증권거래소에 의한 증권시장을 들 수 있다. 증권시장은 유휴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과거에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00% 전산화를 이루면서 온라인 또는 통신을 통해 5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의 매도, 매수가 가능해짐으로써 예전처럼 현장에서 거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거래소 현장을 나갔을 때 시장이라기보다는 일반 회사의 사무실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에 전산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데 반해 미국 뉴욕 증권시장을 가보면 아직도 'Trading Room'이 있

이렇게 나라 안에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나라간에도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하나의 거래소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비용이나 조직 면에서 시너지효과를 얻는 점이 크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2010년에는 전 세계에 5개 미만의 거래소만 남을 것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나라가 아닌 대륙에 한 개정도 있는 것인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재 유로국가에서는 런던시장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물론 아시아국가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같은 국제개방화 또는 효율화 물결이 닥치리라고 예상한다.

자국보다 선진시장에 상장해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차상장

다른 시장을 인수하는 방식 이전에 시장과 시장간의 공유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동경시장에 상장하고 동경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우리나라에도 상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자국에서 상장될 때보다 높은 주가로 측정되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고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회사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그 전보다 국내외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고, 미국판로를 가진 회사라면 신뢰할 만한 회사라는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교차상장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다. 교차상장의 일차 목표인 원활한 자금조달을 이루려면 자국보다 선진시장에 가야 하는데 이는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형태가 아니다. 'Korea Discount'는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한국 주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그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결국 경제와 증권시장의 발달정도와 밀접하다고 판단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로 자국보다 선진국인 나라에 상장해야 주가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후진국일수록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회계처리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며 지배구조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Discount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기업은 뉴욕시장에 상장하고 싶어하는 반면 미국기업들은 자기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기 힘든 한국시장으로의 상장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 IBM의 자금 규모가 한국시장 전체와 맞먹을 정도이니 시장규모의 차이만 보더라도 교차상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교차상장을 대신하는 교차거래 시도

외국기업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과제

최근에는 이러한 교차상장 대신 교차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 상장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 증권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남아공화국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시장개방의 문을 여는 일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문에 있어 특히 싱가포르가 앞서 있어 현재 싱가포르와 교차거래를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일본과도 협의 중에 있다. 성사만 된다면 우리로서는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 동경시장 하면 우리나라의 10배 규모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장개방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그 전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전 준비과정들이 많다. 싱가포르의 경우 호주와 협약을 맺을 때 800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3~4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싱가포르가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하나도 없다. 거래소의 국제화를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쳐져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외국기업들을 우리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현재 증권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유로 런던, 뉴욕, 동경과 같은 큰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더 작은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는 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우 드문 일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상장유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인가?

다행히도 우리 이웃나라에는 가깝게는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그 옆에 인접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빠른 고성장으로 인해 자국 경제의 거품 현상으로 시장이 어지럽고 혼란하자 아예 처음부터 뉴욕이나 런던 같은 큰 시장에 바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다. 또한 아시아시장 중에선 일본 다음으로 큰 홍콩시장으로도 상장하고 있다. 자국시장일뿐더러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역시 홍콩시장에 상장하기 힘든 중국의 많은 작은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는 시장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국에 상장하는 기업에게 영주권을 주고, 자녀들에게는 학교 입학 시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 또한 지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모국 기업의 활동을 여러모로 도와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역사적, 지리적으로 갖는 친밀감이 있다. 홍콩의 경우 중국으로 귀속되었으나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한국을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오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홍콩시장은 금융,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종의 회사들이 대다수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 분야의 제조업체들이 골고루 상장되어 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다는 점 외에도 IT 강국으로서 가지는 메리트와 벤처기업들로만 이루어진 시장이 따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매년 중국기업의 상장유치를 위한 자리에서 위에서 말한 장점들을 언급하며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은 없다고 설득한다.



선물시장은 우리가 세계최고

기업의 증시상장은 더 큰 기업 되기 위한 사회적 책임

현재 우리나라의 GDP나 수출규모가 세계에서 11~12위 가량 된다. 반면에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으로 따질 때 15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적 순위보다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선물옵션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이다. 2등과 규모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클 정도이다. 선물시장은 일반 주식투자자보다 투기성이 크며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많다. 그런데도 시장개방한지 이제 10년인데 벌써 세계 최고의 거래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경마나 로또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와 수많은 거래량을 차질 없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놀라워들 한다. 그만큼 현재 선물시장은 외국에 거드름을 피울 수 있을 만큼 짧은 역사에 비해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할 수 있겠다.

요즘 우리기업의 증시이탈현상이 보이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기업을 공개하는 것이 회사에 무슨 이득이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굳이 이득을 따진다면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높아지는 회사의 공신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이득보다는 더 큰 회사로 커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반드시 커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연륜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주어지는 권한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것이다.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때가 되면 그만큼의 책임 역시 자신의 몫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증시 상장 또한 더 큰 기업으로 커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 추구하는 통합증권거래소

통합증권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원, 회계자본 1조 1천억원으로 재무구조면에서 매우 우량한 기업이다. 통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코스닥위원회, 제3시장을 통합한 기관으로 직원이 7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시장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인원이 이유를 거래소시장 운영사업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 운영업이기 때문이다.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는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자체로는 매우 국내적인 표현이고 국제적으로는 그다지 매끄러운 표현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하면 한·중·일 세 나라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선다면 곧 세계적인 위치에 설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한 비전에 맞추어 삼대전략을 세웠다. 첫째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앞서 여러 번 나온 'Korea Discount' 요소들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선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객우선중심의 경영실천이다. 통합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로 발족하면서 그 고객이 1차적으로는 증



권회사들이며 2차적으로는 증권회사들을 움직이는 수많은 투자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우선되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조직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주식투자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속마음은 주식으로 큰돈을 벌고 싶으면서도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자산을 공개한 유명인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주식투자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속다르고 겉 다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주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함이 마지막 전략의 목적이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유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과 같은 다양한 연금제도에서 생기는 여유자금 규모 또한 엄청날 것이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이 많고 손실을 봤을 경우 감사다 뭐다 해서 개인적인 징계 등의 이유로 안전한 은행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식 변동을 적게 할 수 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으면 주식시장으로 여유자금을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가 나오는 요즘이야말로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자금을 주식으로 돌릴 수 있는 때라고 말한다.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어쩌면 정부의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일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수많은 고객들과 자금을 어떻게 맞을지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한다. 이를 위해서도 조직의 품격을 높이는 목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시장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 나라의 신뢰도



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 시장이 미국 같은 선진시장에 비해 신뢰도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각 구성요소의 어떤 면이 뒤쳐져 있는지 알아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신뢰도 계량화를 제안했고 현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시장신뢰지수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책이 코스닥 취지

예전부터 중소기업창업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쉽게 태어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 좋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이 없어 창업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수시로 규제개혁, 규제혁신, 규제타파 같은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규제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고 딱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 코스닥의 취지이다. 코스닥에 상장신청을 한 기업들의 심사과정을 보면 엄한 편이다. 그 과정에서 실제 기술력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지 못하고 심사위원의 까다로운 질문에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신청은 거절당한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다. 아직 어린 벤처기업을 보고 다음에 커서 유망한 선수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경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판단은 정확히 해야 하지만 자료가 신통치 않고 대답 못한다고 해서 'No'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기준에 맞으면 상장해주

자는 것과 처음 심사에 통과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도 이후 수시로 판단하지는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처음 상장되었던 기업이 나중에 탈락되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자신책임투자의 원칙을 강조하는 바이다.

손님이 집에 오면 새로 집 단장을 하듯이 우리가 외국기업을 맞이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던 불합리한 제도를 많이 고쳐나가려 한다. 지난해에 중국 북경을 다녀왔다. 중국증권감독원과 우리 금융감독원간에 거래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교환 및 외국기업의 상장에 필요한 제도 등을 함께 토의하자고 합의했다. 우리로서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협조를 얻어 북경 주변에 70여개의 기업 및 정부각계인사와 만나면서 상장정책에 대한 설명, 외국기업의 상장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얘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5월에는 20여개의 상장기업과 함께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에서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코스닥 기업들은 그 기간 중에 주가가 20% 가량 오른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에 기관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사업설명을 하면 바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투자비용이 올라가 주가도 오르게 된다. 이런 행사를 투자자들을 불러만 올 수 있으면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국내에서 200여개의 상장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인바운드를 할 예정이고 반응도 매우 좋다. 성공하면 내년에 대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소시장이 시스템 운영업이기 때문에 IT통합은 지금까지 제 각각이던 시스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절약의 여지도 많고 효율성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현재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다른 나라에 거래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거래소가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분 참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시장보다 선물거래량이 100배 이상 많아도 한국은 끄떡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오히려 우리 시장과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업과 투자자의 원활한 시장운영에 최선 다할 것

내가 속해있는 증권업계에 IMF이후 구조조정이 있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증권 분야가 발달하지 않으면 금융 산업간에 파행성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실물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비해 주식, 채권을 발행하는 직접금융 쪽에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업이 더 많이 각성하고 발전을 이뤄야 한다. 직접금융의 다른 반쪽을 담당하고 있는 증권시장거래소는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과 주식을 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원활한 시장운영으로 각각 많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나가겠다. **人間**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

김홍식 전남 장성군 군수

1995년 6.27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을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주민의 정책 참여가 확대됐다는 점 외에도 지자체의 위상변화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심성 행정, 지역간 갈등과 이기주의 등은 10년의 성과가 얼룩졌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장성군은 전국 지자체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지방자치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 업무수행을 펼쳐오고 있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민선 1대부터 군정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홍식 군수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무원의 획일성을 고치고 창의성을 키우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는 김 군수의 '교육의 힘'에 대한 믿음은 1995년 본원과 함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라는 교양강좌를 탄생 시켰다. 매주 열리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8월까지 총 457회에 주민과 공무원 22만여명이 참석한 대표적 지방강좌로 성장해 타 지자체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각종 아이디어가 지역현안사업에 적용되어 그 동안 154개 부문의 각종 대상과 98억원에 이르는 상금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장성군의 변화와 혁신과정을 집대성한 <주식회사 장성군>이 양병무 본원 원장의 집필로 이 달 출판을 앞두고 있어 장성군의 모범사례가 전국에 구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됐다.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통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김홍식 군수를 만나 군정에 대한 신념과 향후 계획,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의 힘 그 성과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김홍식 군수

1937년 생 / 광주사범학교 졸업 /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전경련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초등학교 교사 / 광주 동신중·고교 서무과 / 전라남도 내무국 서무과 / (주)일진 상무, 전무이사, 부사장 / (주)두양 대표이사 사장 / 전라남도 교육위원 / 민선1대~3대 장성군수

군수님께서는 민선 초대부터 시작해 3선 임기를 이제 1년여 앞두고 계신데요. 그 동안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나 기억에 남는 지역발전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군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대기업 교육기관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지구촌시대에 국제적 감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배낭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발전 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인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꼽을 수 있어요.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던 의적 홍길동이 우리 군에서 태어난 실존인물이라는 사실을 역사고증을 통해 밝혀내고 금년에 7회째 '홍길동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길동 캐릭터 개발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호남 유일의 사액서원인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 등 문화재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관광장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장성복합화물터미널 건립과 현대모비스 유치로 통해 물류유통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주력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장성에서는 지난 97년부터 '홍길동 캐릭터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고증 등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현재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요.



▶ 홍길동생가복원모습

'홍길동' 하면 '소설 속의 주인공' 또는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의적'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설 속의 홍길동에서 실존인물 홍길동으로

밝혀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홍길동 캐릭터 개발과 축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보지 않고 '홍길동 생가 복원사업' 제안을 내 준 공무원, 이 제안을 과감히 채택할 수 있었던 장성군, 홍길동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군민과 향우들이 보여준 단합된 힘,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홍길동 사업은 그 동안 전설이나 구전으로만 전해 오던 '장성사람 홍길동'의 실존성을 밝혀내기 위해 연세대 국학연구원 설성경 교수 팀에 홍길동의 역사 고증작업을 의뢰했고, 그 결과 고증문헌을 통해 역사 속의 실존인물로 밝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홍길동을 소재로 캐릭터를 개발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겠다 싶어 두 차례에 걸쳐 기본·보조 캐릭터를

개발한 것이 당초 예상한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26개 회사와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신활력 사업에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이 선정되어 2007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 TV 애니메이션 제작, 홍길동 출판만화,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 음악 및 벨소리와 캐릭터 마케팅 및 라이선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저희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9월로 10주년을 맞습니다. 명실공히 전국 자치단체 교양강좌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는데요.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20여년간 기업에서 근무하다 95년 초대 민선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의욕을 갖고 군수에 취임했지만 막상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은 100점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창의성이 전혀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복지부동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정관념과 획일행정이 행정 전반에 만연되어 있었고, 특히 도장만 찍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과 줄서기, 눈치행정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었죠.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공무원의 생각을 바꿔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인간개발연구원과 지역실정에 알맞은 교육방안을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1995년 9월 15일 장성군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처음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날로 확산되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운영해온 것이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옛 말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성아카데미는 타 지자체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처음부터 호응을 얻지는 못했을텐데요.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개척할 때는 저항과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장성아카데미도 시작할 때는 공무원들이 주 1회는 너무 많다는 이유로 참석률이 저조했고 교육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죠. 예산과 시간 낭비라는 언론의 왜곡 보도, 지방의원들의 예산삭감, 강의내용이 어렵다는 여론형성, 주민의 부정적 이미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2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교육계를 신설했습니다. 또 과감한 투자로 피교육생이 선호하는 우수강사를 초빙해 관심을 갖도록 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작한 장성아카데미 10년의 역사는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군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성아카데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요.



▶ 장성군은 2004년 1월 대전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혁신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시에는 장성군이 어디 있느냐고 되레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장성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큰 성과겠지요. 또한 그간 다녀가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각 분야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저명인사들로서 이들에 의한 반복교육으로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은 엄청난 의식수준 향상을 이루어 왔으며 사고의 영역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교육이나 모임에 가도 장성군 공무원의 사고방식이나 역량이 대기업 수준 못지 않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이와 같은 교육의 결과는 1, 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과 2003년도 한국경영상생산성 인재개발부문 대상, 그리고 2004년 1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정부 대전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장성아카데미가 모범혁신사례로 선정되어 교육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민간단체, 언론사, 중앙·지방정부에서 선정한 154개 부문의 각종 대상과 98억원에 이르는 시상금 수상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인재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장성아카데미 10주년을 기념한 포럼이 9월 15일 열릴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박광태 광주시장, 7월 8일 450회 아카데미 강연

학계, 언론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군민 등 전국의 각계 인사 6백여 명을 초청하여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기념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군과 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10주년 기념포럼에서는 지방자치 10년을 되돌아보고, 장성아카데미 등 각종 사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분권시

지난번 초청된 한 강사 분이 요즘 서울에서는 장성아카데미에 다녀와야 명강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 아카데미 강사를 섭의 할 당

대를 맞아 지방자치 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 장성아카데미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지식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혁신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군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장기투자를 위한 전략으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행정 공무원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전문기관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자의 학습의욕과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운영을 차별화 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교육도 강의 중심교육에서 토의식, 참여식, 체험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장성아카데미하우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또한 아카데미의 결실이라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군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 3층 규모의 최첨단 전자도서관과 홍보전시관인 장성아카데미하우스를



▶ 지난 5월 31일 아카데미하우스 개관식

지난 5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1층은 전시공간으로 장성의 역사, 유래, 향토, 환경과 미래 비전 등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층과 3층은 디지털 자료실, 아학실, 위성TV실, 어린이자료실, 아카데미자료실 등 전통과 첨단 IT가 결합된 새로운 이미지의 전자도서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시관은 장성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어 군민들로부터 온 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교육의 힘'을 중요시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저희 연구원의 모토인 '인간개발'과도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군수님의 인간개발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의 '인간개발'과 우리군의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의 힘'은 인재육성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교육방법에 있어요. 이제 이 사회는 1명의 인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인재육성이 미래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말과 우리군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슬로건은 인간개발에 있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군요.

지방자치 10년, 긍정적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보시는 지방자치의 걸림돌과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지방자치의 걸림돌은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부문은 간단히 말해 19세기 법과 제도로 20세기 공무원이 21세기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수로 취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시도한 팀제가 당시 내무부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98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제를 도입하고, 200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팀제 조직개편을 한 것에서 보듯 새로운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직위가 높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반면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은 도장만 찍고 하위 공무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간부문에서는 1%도 안 되는 세력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리한 공사청탁, 인사 개입 등 폐단이 발생하여 지방자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과 지역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내가 손해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기업 경영 경험을 살려 장성군정을 이끌어오셨는데요. 평소 간직해오신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본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해내는 성격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도 결과적으로 장성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라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참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고정관념을 깨고 인기보다는 소신대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정을 이끌어오면서 지방 토호세력은 멀리하고 지방언론에게는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투는 현상에 의한 개인·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능력위주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연세를 가능하기 힘들 정도로 항상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평

소 건강관리나 취미는 무엇인지요. 퇴임 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 군민건강 3운동 중 하나인 군민 걷기운동

특별한 건강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취임 초기만 해도 하루 2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 걷기 운동과 술안 돌리기 운동, 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군민건강 3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선 3기 동안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장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 퇴임 후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희 연구원의 이념에 적극 동참하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원은 그 동안의 업적을 되돌아보건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교육기관임이 자명합니다. 장성아카데미가 평생학습의 대표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훌륭한 강사 선정과 함께 우리 군의 평생교육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만기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연구원의 신념이 21세기 국가발전의 큰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수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소상공인의 파트너 꿈과 열정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 이사장 1947년 생 / 고려대 상학과 졸업 / 고려대 경영학 석사 / 서울신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조사역, 심사역, 창원지점장, 성동지점장, 대구지점장, 뉴욕사무소장, 신용정보사업부 조사역, 인사부장 (이사대우), / (주)신보에이드 대표이사

소상공인의 경제학

소상공인은 최종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사업자로서, 이들 사업의 성패가 우리 경제의 경기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현재 경제양극화로 인한 소비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업상황이 매우 힘든 지경에 있다.

소상공인의 분류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제조·광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며, 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경우는 5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총 사업체 295만개 중 소상공인의 수가 262만개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종의 사업체수가 가장 많으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한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6%로서 일본 15.4%, 대만 24.8%, 미국 7.4%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환란 위기와 함께 구조조정

으로 조기 퇴직한 많은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하여 창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회안정망 구축과 서민생활안정, 중산층육성 기여, 지방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경제·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금융환경은 전·월세 임차 점포에 따른 담보력 부족과 은행 거래실적저조 등에 의한 신용부족, 세무자료 미흡에 따른 공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과 역할

일반인들에게는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란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설립한 공적보증기관으로 특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1999년 6월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신용력은 있으나 담보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및 저리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재단은 소상공인의 부족한 신용을 창출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용창출능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활기찬 서울경제건설과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설립 이후 재단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업무를 수탁하여 최초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동시지원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으며,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해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단은 41,000여개 업체에 1조 6천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해 11번째로 다소 늦게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가장 빠른 성장을 하여 최고의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CEO로서의 새출발

국내 유수의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이사로서의 임기를 끝으로 30여년의 금융기관 경력을 마감하려니 아쉬움과 함께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만감이 교차되었다. 퇴직 후 한두 달은 그동안 자주 뵈지 못하던 분들도 찾아 뵈고 그간의 직장 선배들과의 잦은 모임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지냈다. 인생의 과정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데 직장생활을 통한 인연 또한 학창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통한 만남만큼 귀중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빈도도 줄어들면서 이대로 주저앉아 무의미하게 세월을 소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중 신용보증기금의 관련회사인 (주)신보에이드 대표로 임명되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신보에이드는 중소기업 경영전문지 출판 및 용역 전문회사로서 새로운 비전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던 기업이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직장 후배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CEO공모가 있다고 권면하였다. 내심으로는 원하던 직책이었지만 신보에이드에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려운 자리를 배려해준 분과 그간 같이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또한 경력이 화려한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인데 선임되지 않을 경우 또 무슨 망신인가? 그렇게 일주일간을 혼자 고민하다가 얼마나 갈등이 심하였던지 어느 공휴일을 택하여 기도원을 찾았다. 기도 후 그 기관의 CEO로 보내주실 경우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섬겨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그들을 중산층으로 육성하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빠른 시일 안에 중진국으로 들어서는데 한몫을 담당하겠노라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는 말씀대로 기도 응답되어 2004년 11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에 임명되었고, CEO로서 새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테헤란로 풍경과 맨해튼 생활의 회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역사적 사거리 테헤란로에 위치한 아주빌딩의 서울벤처타운에 소재하고 있다. 건물 내 벤처타운에는 크고 작은 벤처기업들이 밤을 새우며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상당수의 벤처기업들이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하였지만 아침 출근시간에는 젊은 남녀들이 빠른 걸음으로 직장을 향하는 모습이 활기차 보인다. 테헤란로를 따라 좌우로 높게 들어선 빌딩 숲과 도로 양옆으로 게양된 태극기를 보면 맨해튼 빌딩 숲 속에 미국 성조기가 게양된 모습과 비슷한 광경으로 보여진다.

이에 불현듯 미국 맨해튼에서의 생활과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나는 1995년 9월 신용보증기금의 뉴욕사무소장으로 부임하여 3년여 동안 근무하였다. 부임 당시는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맨해튼 내에 코리아웨이 명명식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로 들떠있던 때였다.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미국 동부지역을 살살이 돌아 다녔다. 이웃에 유대인 중년 부부와 자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남편은 신문학 전공자로서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프리랜서로 평론을 하면서 어학교육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고, 부인은 줄리어드 출신으로 뮤지

컬 작곡자였다. 그들은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우리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와 비교하면서 유사점을 나름대로 이야기하였다. 남북분단과 동족상쟁의 역사,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재능, 각종 절기마다 전통적인 행사, 교육열, 강한 모성에, 가족유대가 강하고 모임 때마다 고난의 역사를 음미하는 것 등이다. 또한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임 인터뷰에서 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 1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 지파 이름이 단지파로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닌지라는 대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함께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개척자로서의 강인한 민족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점이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공감하게 된다.



▶ 위에서 아래로 : 1사촌 농촌사랑운동(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와 자매결연), 재단청립 6주년기념 직원 호프데이행사, 6월 28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업무협약체결식

새로운 다짐과 재단의 전망

재단에 부임한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내 인생 여정의 마지막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한 보증기관임은 자명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특히 금융환경 면에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재단의 고객인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감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영을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변혁을 통한 고객감동의 새로운 기관상을 이루어 갈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고결한 품성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꿈과 열정이 있는 직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 나의 조그마한 바람이다. 이를 위하여 실적 등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재단의 장기적 비전에 맞추어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한 발 한 발 나아가갈 것이다. 그리하여 소상공인을 포함한 사람을 중시하는 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직장을 이루어갈에 있어 나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워 이 곳을 떠나는 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며, 훗날 재단의 10년사, 20년사 나아가 50년사가 만들어질 때 재단의 발전에 작은 획이나마 기여한 의미 있는 CEO로 남고 싶다. (人間)

제4기 제6강 남해군 '남해 보물섬아카데미' 8월 12일(금)

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영철 CMC 의식경영컨설팅(주) 교육사업부 본부장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해 보물섬아카데미"는 지난 2004년 남해군과 본원이 정보·지식·무한경쟁의 21세기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하고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설한 지방자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제4기 7강을 마친 보물섬아카데미는 경제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경륜있는 강사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의 폭도 다양화되어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8월 12일 "내 안에 모든 답이 있다"를 주제로 열린 제4기 6강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제4기 제6강 남해 보물섬아카데미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속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 사람에게는 자기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을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스트레스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됩니다.

에너지 소비형태에 따른 머리형, 가슴형, 장형

사람마다 각자 에너지를 쓰는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관상, 말투,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성파'라고 합니다. 이성파는 머리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 심장, 가슴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성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 배 안의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말해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기지피(知己知彼)'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부터 알아야겠다는 거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스스로도 편해지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알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이 중학생 정도 되는데 동생이 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동생이 어디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습니다. 머리 깨지고 쌍코피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동생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첫째, "야, 바보같이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거야? 어떤 놈이 때렸어?" 하면서 당장 때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둘째로 "야, 너 왜 그래, 왜 맞았어?" 하고 이유를 들어보시는 분, 셋째는 "아이구, 너는 왜 이렇게 매일 맞고만 다녀. 불쌍해죽겠네." 하면서 얼굴부터 씻겨주고 왜 맞았는지를 차근차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장형'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이유부터 들어보시는 분들은 '머리형'입니다. 이런 분도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이유부터 알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가슴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아픈걸 닦아주는 것부터 하죠. 그리고 난 후에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동생이 억울한 경우라면 장형보다 더 무섭게 폭발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합해서 사시면 삶이 조화로워집니다. 축구를 하면 포지션이 공격, 미드필드, 수비가 있는데 동네축구는 어떻게 씁니까. 젊었을 때는 동네축구입니다. 공격이면 전원 공격이고 수비면 전원 수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세 가지를 서서히 골고루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화를 찾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자기가 속한 유형을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인간 유형별 이미지 특징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형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이들이 어떤 것이 자기 적성에 맞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는 먼저 얼굴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형은 일반적으로 힘, 추진력,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형 사람들은 통뻐에 가슴이 넓은 사람, 키가 크거나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평소에 화를 잘 냅니다. 듣는 사람은 화를 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평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얼굴이 일반적으로 크고 밥도 잘 먹습니다. 머리형은 제가 강연을 다 시면서 느끼는 것인데, 강연장에 머리형이 많으면 강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은 제가 오버하면서 강연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형은 얼굴이 작고 밥을 먹어도 살도 잘 안찌지만 식사량도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도 잘 안하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슴형은 얼굴이 통통해요. 눈은 일반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말투도 직설적이지 않고 노래하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입니다. 가슴형은 말을 해도 결론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얘기 다 했다고 하지만 두루뭉실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다른 것은 각자 에너지 충전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형은 먹어야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제 아들이 장형인데 집에 들어오면 냉장고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화를 내요. 다소 버릇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대신 장형은 의리가 강합니다. 그리고 장형은 돈이 없으면 위세를 떨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집, 차도 큰 것을 좋아합니다. 가슴형은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 만나는 것으로 충전을 합니다. 제 딸이 가슴형인데 집에 와서 엄마가 없으면 저녁까지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슴형은 주로 옆 사람에게 칭얼거리를 잘합니다. 이런 남편들이 있는데 부인 옆에 붙어서 자꾸 뭘 해달라고 조릅니다. 반면 머리형은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다고 부부가 진정 사랑하는 것인가' 하고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머리형은 집에 들어와도 부모들이 묻는 말에 힘없이 대답해서 부모들을 걱정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잠자는 것으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자녀들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줘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머리형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계속 공부를 하게 해줘야 합니다. 교수, 설계, 연구분야 등에 머리형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형 아이들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절해줄 필요는 있지만 못하게 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가출하는 아이들 보면 가슴형이 많습니다. 장형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장형이시고 저도 장형인데 저는 대학을 특수학과에 가려고 했고 아버지는 법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상위권이던 성적을 하위권으로 떨어뜨리면서 아버지 노선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결국 대학도 겨우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의 적성을 잘 살펴보고 아이들의 상태에 부모가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미지	?	!	●
특징	논리적	감성적	활동적
온도	차갑다	따뜻하다	뜨겁다
중요자원	아이디어, 정보	사람, 인맥	의지, 힘
신체	슬림하다	둥글다	건장하다
말	근거가 뭐야?	느낌이 안 와...	결론이 뭐야?
주요감정	두려움	수치심	분노(화)
관심	미래	과거	현재
충전법	잡자기	사람 만나기	먹기

▶ 인간의 세 가지 유형표

유형별 표현방식과 부부관계

이제 부부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생활하다 보면 점점 둘 사이가 힘들어집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불과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살아보고 마음이 맞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표현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형은 스킨십을 싫어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머리형은 애인이 옆으로 다가가면 대부분 도망가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정표현을 싫어하니 가슴형 남편들은 속이 탭니다. 그리고 머리형은 근거와 논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머리형 부인들에게는 결혼기념일과 같은 기념일 때도 작은 선물과 함께 의미를 붙여 '여보 사랑해' 한 마디 하면 고마워합니다. 가슴형은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슴형 부인을 둔 남편들은 괴롭습니다. 물론 신혼 때는 좋지만 점점 생활이 피곤해지면서 부인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가슴형 부인들은 남편 애정이 식었다고 오해하고 맘이 상하는 겁니다. 가슴형 부인에게는 결혼기념일도 큰 이벤트일수록 좋습니다. 장형 부인들에게는 '돈'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증거로 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인들은 남편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건강한 의식은 건강한 성품을 만든다

성격과 건강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건강은 성품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습니다. 장형은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로 심장병, 고혈압, 내출혈, 중풍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형은 늘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머리형은 콧병, 입병, 신장병이 많이 걸리는데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리형은 항상 두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광이나 신장이 좋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행동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며 운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가슴형은 항상 가슴을 조이다 보니까 폐, 위장에 병이 많이 걸립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몸에서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 즉, 기라는 것이 생깁니다. 기가 강해지고 잘 통하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멎치고 흐려지지 않지만 기가 약해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신장이 나빠지며 욕망, 갈망 집착을 하면 위장이 나빠집니다. 분노는 간이 나빠지며 사람을 공격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런 의식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기운이 없고 수명도 단축시키게 됩니다. 반면 용기는 공정을 얘기하고 힘을 줍니다. 친절한 사람은 자식에 쇠가 붙듯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행복을 끌어들이니다. 포용은 책임과 용서를 말하며, 이성은 이해를 말합니다. 사랑은 존경, 공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것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이 답을 갖게 되고,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족이 답을 갖게 되고,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면 조직이 답을 갖게 됩니다. 서로 감사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때문에'라는 말은 분노, 화를 뜻하지만 '덕분에'라는 말을 하면 서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결국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갈 길 가면 행복의 길 열린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운 센 태권V가 되지만 '망할놈', '죽여버리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몸에 독소를 만들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도 성격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품과 성격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품격이 높아집니다. 내 격을 높이고 내 품을 높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장형, 가슴형, 머리형은 모두 다 능력이고 성격입니다. 자기가 갈 길이 있습니다. 남 따라하지 말고 내 뜻대로 가시면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민 모두 많은 행복 가지시길 바랍니다. **人間**



이영철 본부장

1961년 생 / 전북대 졸업 / 우성타이어(주) 팀장 / 심신수련 7년 / 아하 리더십과정 개발 /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산업계에 나비·아하 교육과정 보급 / 삼성전기, 제일모직, 삼성중공업, KBS 외 다수 강의 / 아하 컨설팅사업부 수석컨설턴트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2005년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압정으로부터 해방한지 60년이 되는 해, 다시 말해 광복 환갑의 해이다. 광복60주년 행사는 그 어느 해 행사보다 여러 면에서 달랐다. 살수가 없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조국을 등지고 원망하며 떠났던 해외동포들이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광복60년을 맞는 행사 장면들을 TV를 통해 보면서 지난 60년의 고도성장사와 함께 힘들게 붙잡고 왔던 민족사를 생생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광화문 세종로에서 광복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인파와 정명훈 중심의 시청광장 음악행사, 송례문의 국민가수들이 중심이 된 정부주관 행사에 참가한 국민들의 수는 대단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응원인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30도가 넘는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했으니 과연 한국인의 기질은 다르고 대단하다는 짜릿한 감동을 갖게 했다.

제2광복의 시대를 열자는 국민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광복60주년 경축사에서 토해내고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정치에 험한 파고를 환히 볼 수 있게 했다. "정치란 전쟁처럼 광란적이며 그만큼 위험스럽기 그지없다. 전쟁에서는 죽는다 해도 단 한번만 죽게 된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을 수 있다."라고 세계 정치사에 명성을 날린 윈스턴 처칠경은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스러운가를 말하고 있다. 광복절을 맞아 다양한 정치사범들이 사면되어 나오는 모습에서 처칠경의 정치에 관한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

지난날 세계정치사에서 비극적으로 겪었던 강국들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로서의 광복도 중요하지만 세계화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가족·사회적·국가적·세계적·인류사적 차원에서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 자기관을 벗어 던지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인생관으로 되돌아서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잘못된 일을 남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며 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동양에서 인생을 깊이 탐구한 공자와 같은 철인들이 찾은 인간구도(人間求道)의 길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위대한 자아(自我)는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존재였다. 예수가 깨달은 자기자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자의 '아들'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인간구도의 길을 걸었던 공자, 석가, 예수는 수 천년의 인류사를 통해서 변함없는 인류의 스승이요, 참 리더이며 성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대변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청사건, 과거사진상규명 등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수많은 실수와 과오들이 정보화시대를 맞아 속속들이 노출됨으로써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랜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모든 것이 통제된 전체주의시대를 살아왔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지닌 개성(자기만의 자기)을 상실한 채 권력과 체제, 제도와 통제된 사회질서 속에서 자유인이 아닌 노예적인 삶을 영위해 왔다. 정치적 혁명을 통한 민주화시대, 정보기술(IT)이 일으킨 지식정보화시대는 어떠한가. 걸잡을 수 없이 일어난 변화와 함께 아이러니컬하게도 폭발하고 있는 유행의 노예가 되어 개성을 잃어버린 채 광란과 혼란을 들이마시고 마취된 상태로 대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자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자기의 길을 찾은 예수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에게 갈 수 없음을 성서는 밝혀주고 있다. 참 자기의 발견이 중요하다. "나의 일생을 통해서 알게 될 많은 사람 중에서 결코 떠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사람이 바로 '나'다. 나의 생애에 대한 의문(즉 내가 왜 살고 있는가)에 단 하나의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자도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폴 J 마이어는 그의 유명한 LM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폴 J 마이어는 30대 이후에 나의 인생행로와 삶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준 세계적인 지도자이다.

공자가 깨달은 인간구도는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한다(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멸망한다)"이다. 그렇다. 나에게서 나 아닌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중요한 인생과업(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저 무한 우주공간 속에 떠도는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고 각기 그들의 길을 찾아 우주의 질서를 이루듯이 나는 이렇게 마땅히 성장하여 내가 차지해야 할 곳을 찾아 그곳을 성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억조창생(億兆蒼生) 단 하나 밖에 없는 내 자신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명상의 과제를 적어보았다. **人間**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

김진배 유머연구원 원장

不信
不安
不快
不勾
不值



경영학의 핵심은 재화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유능한 경영자가 될 수 없으며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도 없다. 인간경영이란 단순히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원원의 사고방식이 유머경영의 출발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을 6개로 구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방식은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즉 서로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WinWin)'적 사고방식이다. 승패를 가르는 경쟁이나 대립보다 협력을 중심에 두는 이 방식에 대해 코비는 '기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윈윈'적 사고방식은 유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유머의 목적은 웃음을 통해 함께 기쁨을 느끼고 그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는 것에 있으며, 이는 곧 현대 경영학과 조직론의 주요관심사인 '윈윈'과 '시너지 효과'를 의미한다. 유머에는 이처럼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조직경영에 필요한 요소가 두루 포함되어 있고, 바로 그것이 '유머경영'의 출발점이다.

IBM은 매년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펠러세이드에서 중역회의를 열 때마다 존 모리얼이라는 유머 컨설턴트를 빠짐없이 기조연설자로 초청한다. 모리얼은 중역들을 웃기는 것은 물론 웃음이 부하직원과의 의사소통에 '경이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가르친다.

이것은 유머가 기업의 조직운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IBM 외에도 많은 세계적 대기업에서 유머를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머 컨설턴

트는 그 과정에서 새롭게 각광받기 시작한 '웃음 전문가'들이다. 보도에 의하면 1급 유머 컨설턴트가 1시간 강연료로 받는 액수는 무려 5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적은 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에서 이런 거금을 들이면 서까지 웃음 전문가를 초빙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감원이나 해고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기보다 유머를 통해 조직에 웃음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자가 말하는 유머경영을 이미 진작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머경영의 효과

웃음의 효과는 '의욕'이나 '활력'이라는 추상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유머 컨설턴트들은 조직에 웃음이 퍼지면 근로자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또 소속감과 연대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경쟁회사에 빼앗길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유머경영학은 이처럼 무형의 효과(의욕과 활력)와 유형의 효과(비용절감, 인력 유지)를 동시에 낼 수 있는 효율적 경영방식인 것이다.

유머경영의 효능은 동양에서도 일찍이 강조된 바 있다. 당나라의 전설적 거부인 송청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구불약(九不藥)'이 바로 그것이다. 구불약이란 그가 실천해서 득

을 본 웃음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웃음 속에 아홉 가지 '불(不)'을 극복하는 묘약이 있다는 뜻이다. 요즘 경영학 관련 논문이나 칼럼에서 자주 거론되는 구불약의 내용은 이렇다.

1. 불신(不信) : 웃음은 상대방이 내게 갖는 불신을 없애준다.
2. 불안(不安) : 웃음은 나와 타인의 불안을 잠재운다.
3. 불양(不悅) : 웃음은 원망과 앙심을 없애준다.
4. 불구(不勾) : 웃음은 내 마음이 끈음을 드러내준다.
5. 불치(不值) : 웃음은 물건의 값을 속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6. 불의(不倚) : 웃음은 나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준다.
7. 불충(不衷) : 웃음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없애준다.
8. 불경(不敬) : 웃음은 공손하지 않다는 생각을 없애준다.
9. 불규(不規) : 웃음은 원칙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없애준다.

요약하면 웃음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모든 의혹과 경계심을 없애줌으로써 서로간에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차간에 득이 되는 의미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송청의 생각이야말로 윈윈 전략으로써의 유머경영이 갖는 대외적 효능을 정확히 꿰뚫은 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머리스트의 최대걸림돌은 관습, 편견, 권위의식

유머경영은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인간관계의 원인을 실현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며, 대외적으로는 상호이익을 추구하여 거래관계의 원인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유머의 효능을 과소 평가했던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조직 전체에 유머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출발점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유머리스트(유머형 리더)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유머리스트가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를 유머리스트로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관습과 편견과 권위의식이다. 조직원들에게 '엄숙함'과 '정숙함'을 요구하는 관습, 잘 웃는 사람은 싱겁고 가벼운 사람이라는 편견, 그리고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 앞에서 실없는 농담을 하느냐'는 권위의식은 리더가 유머경영학을 도입하고 스스로 변신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건대, 맨 윗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조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쓸모없는 권위의식에 빠져 조직의 발전을 포기하느니 자기의 권위(물론 조직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권위이다)를 포기하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고질병 중 하나인 경영자의 권위의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데브라벤틴의 말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유머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재미있는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기 힘들다. 설사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와 함께 등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유머경영은 미래형 경영방식

유머를 구사하고 웃음을 나누는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인간들이 모인 조직을 바꾼다. 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까지도 바꾼다.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원원

전략으로써의 유머, 그리고 그것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머경영학. 이는 21세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 궁극적인 승자가 되기 위해 모든 리더들이 도입하고 연구해야 하는 미래형 경영방식이다.

90년대 중반 필자가 유머경영(fun management)을 주창했을 때만 해도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다. "아! 직원들한테 봉급만 많이 주면 되지. 웬 유머경영?" "우리가 지금 웃을 땀가?" 많은 경영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유머경영의 본 뜻을 오해하고 거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후 유머경영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유머경영의 요지는 이렇다. '신나고 재미있는,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자. 관료적, 수직적, 하이아라키한 조직을 수평적, 참여적, 가치공유의 조직으로 바꾸자!' 이러한 경영이 직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의식, 가치공유, 삶의 보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머경영 그 사용 실태의 예를 알아보자.

1. 국내의 예

'웃음과 긍정'(LG전자 김쌍수 부회장) - 경제계의 살인미소, 재미, 신바람, 긍정 강조

'미션 임파서블'(LG전자 구미사업장) - 주관 부서에서 무작위로 직원을 설정, 이메일을 통해 미션을 부여한다. 지령을 받은 직원은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팀장과 파트리더에게 편지쓰기, 팀 전원이 영화보기, 직원 세 번 웃기기 등

'신나는 직장문화'(이엘인터내셔널 김영수 사장) - 이랜드 지주회사격인 이엘인터내셔널 김사장의 그룹 내 직책은 CJO(chief joy officer)로 뉴코아, 테코 등을 인수하며 뿌리가 다른 직원들을 하나로 융합되게 만드는 스키장 가기, 단풍대회 등 시도. 유머경영전문임원인 셈

'맴시데이'(동양제과 담철곤 대표이사) - 일주일 중 가장 일하기 싫은 수요일을 '맴시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이 요란한 복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출근하도록 유도

'편경영 주창'(현대모비스 박정인 회장) - 조직 문화활성화 차원에서 '뽀뽀 경영대회' 등 오락성 프로그램이 갖든 조직 활성화책과 사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

'월드컵 4강 훈련프로그램'(히딩크 감독) - 선수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경기를 즐기도록 강조, 훈련은 엄하게, 야단칠 땀 무섭게 그러나 평소엔 항상 웃고 껴안아주고 격려

'서바이벌게임'(국방부) - 지겹고 어영부영 시간 때우기 식의 예비군훈련에 짜릿, 재미, 실감나는 서바이벌 훈련도입

2. 외국의 예

'재미있는 비행'(편경영의 원조격인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 - 심야 승객들의 음악신청을 담당할 승무원을 추가로 배치, 승객들에게 뮤직비디오와 샴페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심야 특별기편을 파티장으로 만들, 심야 특별기편을 '재미있는 비행'이라고 광고하여 사업이 70%나 성장

'배꼽 잡는 기내 방송'(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켈러허 회장) - 회장이 출근하면서 오전 9시경에 회사정문에 도착했는데, 수위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농담을 주고받으니 3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토끼 복장으로 비행기 복도를 걸 어다님으로써 몸소 유머를 실천

오래된 불경기로 조직마다 분위기가 처져 있다. 유머와 웃음을 통해 신바람나는 조직을 만들어보자. **人間**



김진배 원장
1958년생 / 국내유머강사호 / 건국대, 연세대, 감신대 대학원 졸업 / 한양대, 명지대, 안양대 개그학 강사 / 연세대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 한국산업교육연합회 강사 / KBS라디오 '사랑의 소리' 유머구성작가 겸 성우 /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새마을연수원, 연세대·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등 공공기관, 기업체 출강 / KBS, MBC, SBS 등 매스컴 활동

회원&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은 한국의 화장 문화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기존의 유물들을 새롭게 구성하여 오픈하였다. 박물관 레노베이션 오픈과 함께 스페이스 씨(space*c)에서는 8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장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조망하는 Cosmo Cosmetic전을 마련하였다.

• **SH공사 김만기 감사**는 강원대학교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가격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윤희진 회원(주)다비육종 사장**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 EXPO 공원과 KOTREX에서 개최된 제4회 국제축산 박람회 추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이갑수 회원(세계통치권복음화운동본부 회장)**은 지난 8월 17일에 종교뉴스신문사 회장으로 영입되었다.

• **윤건우 회원(삼보주단 회장)**은 국내 유일의 이태리 직수입 골프웨어 웨어블 신구매장을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 오픈하였다.

• **한국야쿠르트(사장 김순무)**는 신제품 '하루야채'가 지난달 11일 출시된 지 한달 만에 3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야채즙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 뉴탄산음료 'Hi-Fresh C.C'를 새롭게 출시하였다. Hi-Fresh C.C는 무설탕, 저칼로리의 건강기능성 탄산음료다.



• **일양약품(대표 유태숙)**과 경남제약은 최근 공동으로 마시는 비타민C 드링크 레모나-D를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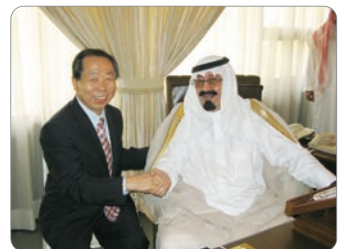
• **삼성석유화학(사장 허태학)**은 공장운영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석유화학공장을 지난 6월부터 회사에서 개발한 '공정 운전정보(PMS,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덕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장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우인터내셔널(대표 이태용)**이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 위치한 A-3광구에 대한 지분 40%를 한국가스공사 등에 양도하며 공동투자자를 유치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4일 "미얀마 A-3 광구에 대한 공동투자자로 인도석유공사(ON GC), 인도가스공사(GAIL), 가스공사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지분을 각각 20%, 10%, 10%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3광구사업은 A-1 광구 남쪽에 위치한 A-3광구(면적 6780km²)를 탐사 및 개발하는 것으로 최소 3조 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전체 가스사용량(연 1조 입방피트)의 3년치에 해당하는 매장량이다.

• **웅진코웨이(회장 윤석금 / 대표 박용선)**는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밥솥 쿠첸 등 생활가전 사업부문을 81억원에 같은 그룹 계열사이자 비데 전문회사인 웅진엔텍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웅진코웨이는 "판매로 이뤄지는 생활가전 부문을 웅진엔텍에 양도함으로써 웅진코웨이는 렌탈 사업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200여 명의 인원이 웅진엔텍으로 전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웅진식품(대표 조운호)**은 무카페인 탄산음료 '하늘보리 홉 탄산'을 내놓고 탄산음료 시장에 진출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콜라와 달리 카페인과 인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소화 촉진 작용을 하는 보리와 탄닌 성분이 함유된 홉을 사용해 치킨, 피자 등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시면 깔끔하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웅진식품은 지난달 국내 최대 치킨 브랜드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와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이 달부터는 웨비리마트 등 편의점에 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 **월간 Diplomacy 임덕규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초청으로 지난 7월 6일(수)~15일(금)까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방문하였다. 임 회장은 사우디 방문기간 동안 리야드에서 경제기획원 장관, 교통부 장관 등 정·관·재계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13일에는 지난 10년간 왕의 직무를 대행해 온 압둘라 왕세제를 만나 한·사우디 양국 현안에 대해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며칠 후 와병 중이던 왕이 서거해 압둘라 왕세제가



8월 2일자로 왕에 즉위하여 주한 사우디대사로부터 '킹 메이커'라는 인사를 듣기도 하였다. 한편 임 회장은 이번 사우디 방문을 통해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블루오션 전략으로 사우디에 다시 진출하여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다면 한국경제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주택문화사(회장 이십)**가 뉴스타그룹·동화홀딩스 합작투자 등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도입, 글로벌 경쟁체제 뉴 리더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 1그룹(회장 유상옥 / (주)코리아나)**은 제217차 8월 정기모임을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부동반 참석하여 가평군 상면 축령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취옹예술관을 관람하는 등 모처럼 교외로 나가는 자리를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 2그룹(회장 전순표 / (주)세스코) 다락회**는 9월 모임을 다음과 준비하였습니다.

- 일 시 : 9월 6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클럽 (02-2238-6493)
- 일 시 : 9월 6일(화) 오전 7시 30분
- 장 소 : 이스트벨리CC (031-760-3800~1)
- 참석여부 : 우창욱 총무 (011-222-6323)

• **이종기업 3그룹(회장 황석희 / 법무법인 우현)**은 8월 정기모임으로 8월 29일 양평의 활수서실(活水書室)에서 권오춘 시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통한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종기업 4그룹(회장 김정배 / (주)수성)**은 제41차 인목회 모임을 지난 8월 25일에 책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한국경제신문 상하이특파원 한우덕 기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 지지체소식

•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
1995년 개설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가 올해로써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기념하여 장성군은 본원과 공동주최로 9월 15일 장

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 및 기관 단체장과 도·군의회 의원, 각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및 관련학자 등 600여명을 초청하여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장성아카데미 1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시대 10년의 전반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비롯해 지역교육혁신을 이룩한 장성아카데미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요 강사는 이달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이 기초강연을 하고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최승담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원장이 각 부문별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 문의 : 장성군 교육계 (061-390-7265)
- 인간개발연구원 (02-2203-3500(105))

• **2005 전남실버취업박람회**

전라남도에서는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2005 전남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9월 2일(금)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취업희망자와 구인업체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채용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목포시와 (사)전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다.

• **강화고인돌문화축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이면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을 통하여 당시의 생활상은 물론 면면이 이어져온 지역전통문화를 펼쳐보는 축제의 장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강화군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여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손때가 묻어 있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고창 복분자축제**

전북 고창군은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이며, 웰빙식품인 복분자를 주제로 9월 2일~4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광장에서 제1회 고창 복분자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에서는 복분자 즉석 생과음료시음, 복분자 원액추출체험, 복분자 떡 시식 및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복분자 생리상태 전시와 복분자 가공식품 및 특산물 전시회 등도 마련된다.

회원&연구원 소식

■ 연구원소식

• 일본 해외금융세미나 간담회

지난 8월 21일(일) 아메리칸 패밀리 生命保險會社가 주최하는 해외 금융세미나 간담회에 방한한 일본 금융인들은 한국 측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장래의 파이낸스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본원 회원들 중 최창락 이사장, 김종욱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김우항 제일화재해상보험 부회장, 황석희 법무법인 우현 고문(전 우리카드 사장), 송병순 (주)아리코 대표이사(전 광주은행 행장),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 사랑의 쌀나눔 1주년 기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 사랑의 쌀나눔 1주년 기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

본원은 2004년 9월부터 시민의 신문, 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사)모범운전자회 서울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펼쳐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택시 봉사대가 매월 무의탁 노약자 등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노인공경 '밥사랑' 무료급식소 운영과 '침땀봉사실'을 운영해 노인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의 쌀나눔 1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 봉사에 힘써온 모범운전자회, 뜰사랑 봉사대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2일(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총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는 한편 아산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등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재외동포 경제인 친선골프대회 후원

본원은 시민의 신문, 재외동포신문, 경기도, 재외동포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재외동포경제인 친선골프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외동포경제인 친선골프대회는 9월 13일(화)~15일(목)까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한상대회를 맞이하여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재외동포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고국의 아름다운 초원에서 골프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9월 12일(월)
- 장 소 : 베어크리크 컨트리클럽(경기도 포천)
- 참 가 비 : 재외동포경제인 \$300 / 국내기업인 30만원
- 참가대상 : 재외동포 경제인 / 국내기업인
- 참가신청방법 :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국내 신청인은 전화신청 가능)
www.vittueshoney.nate.com
신청 기입 내용(거주국, 성명, 핸드캡, 참가비 입금여부, 나이, 연락처)
- 참가문의 : 재외동포 사업국 (팀장 : 한현 82-11-9193-1313)
- 기 타 : 선착순 100명 마감
- 입금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능
(www.dongponews.net)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양종관 교수(남서울대학교)의 장남 재호군의 결혼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 일 시 : 9월 3일 (토) 오후 2시
- 장 소 : 잠실종합운동장 야외예식장
(우천 시 바로 옆 강당, Tel. 02-421-5775)
- 연락처 : 016-211-1924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동신선박주식회사	강부부 회장	(9월 1일)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 1일)
성원에드워드(주)	김중조 사장	(9월 1일)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 2일)
(주)라그리닉드파리	권성욱 대표이사	(9월 4일)
주5일넷(주)	김봉중 대표이사	(9월 15일)
(주)한철상사	조병철 사장	(9월 15일)
주얼루시	하경화 대표	(9월 15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 20일)
원자력안전아카데미	황경호 이사	(9월 30일)

LMI & YOU

그 동안 회원&연구원소식과 함께 소개되어온 한국엘엠아이(주) 소식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LMI & YOU》라는 타이틀로 새로이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앞으로 소개될 LMI 고객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에 앞서 장만기 본원 회장과 LMI 미 본사 Paul J. Meyer 회장과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어 지난 30년간 연구원의 사명과 사업의 정신이 되어온 LMI의 교육 컨셉과 설립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폴 J. 마이어 회장과와의 만남과 LMI 교육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세계를 움직이는 10명의 최고경영자로 선정된 바 있고, 27세 때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던 폴 마이어는 이민 2세인 부모님과 집도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라난 말더듬이에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그가 성장과정에서 겪어온 살아있는 체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1965년 미국 텍사스주의 웨이크에서 창설한 LMI社는 지식, 교육,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세계적인 교육사업기관으로 독특한 경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0여년간 70여개국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뉴패러다임시대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인 인간자원 확립에 공헌하여왔다.

장만기 회장은 1972년 '경영자 개발을 위한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의 해외관련 자료를 찾던 중 미국 시사 주간지에 실린 폴 J. 마이어의 기사를 읽은 순간 그의 성공 스토리에 매료되었고 즉시 그에게 편지를 띄웠다고 한다. 폴 회장은 이에 대한 답신으로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사고'라는 제목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어록을 보내왔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난다"고 했던가? 이렇게 폴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된 후 미국의 LMI 본부를 방문한 장 회장은 망설임 없이 즉시 LMI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미국 성취동기연구소(SMI)와 교육지식 산업정보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1974년 4월 2일에 인간개발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사무실을 개원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1975년 설립된 인간개발연구원의 주최로 1977년 주한 미국대사관 무역관에서 개최된 '전인개발 성공동기프로그램 발표회'를 시작으로 LMI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연구원도 사회적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된다. 연구원의 지속적인 활동 끝에 1990년 정식으로 회사를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EPL(Effective Personal Leadership)을 도입하여 지난 15년간 연구원 법인회원을 비롯한 90여개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경영 뉴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해법을 정립, 대학조직에까지 그 수혜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 지난 6월23일 수료한 성도GL 교육참가자들이 담당FT였던 양병우 원장에게 선물한 감사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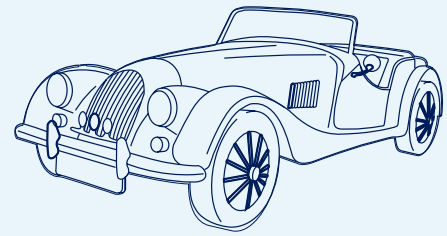
■ 명동지사 LMI 수료자 모임 안내

1. 제23차 정기 강연회 "비전 있는 리더십"
 - 일 시 : 9월 6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명동지사 교육장
 - 강 사 : 이원설 박사 / 송실대 이사장
2. 제14차 정기 등산회
 - 일 시 : 8월 28일(일) 오전 8시 30분
 - 가는 곳 : 북한산
 - 만나는 곳 :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교육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2202-8700 / Fax. 445-2086
www.lmikorea.com

일본 도요타자동차 시찰단



인간개발연구원은 급변하는 시대 新Business Model 변화에 따라 품질향상(Q), 원가절감(C), 납기준수(D)를 유지하는 새로운 생산혁신 전략인 TPS[도요다생산방식] 제조공정을 체험하고, 초일류기업 도요타의 「초다품종소량생산」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Cost 대응력을 벤치마킹해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추진해온 생산성 향상, 조직활성화 등 변혁활동을 체험해보고, 「사람과 기계가 조화를 이룬 최첨단 생산현장」 체험을 통해 선진기업의 Skill, Know-How 및 Process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연수일정 : 9월 25일(일) ~ 9월 27일(화) / 2박 3일
- 연수장소 : 일본 나고야시, 도요타시
- 참가대상 : 기업체 CEO 및 임원, 전문직업인 외
- 참가비용 : 1,400,000원/1인 (참가비용에는 기업방문 Arrange비, 숙박비, 전일정 식사비, 세미나비, 통역비, 버스이동비,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등 모든 일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대리
Tel : 2203-3500 Fax : 2203-1974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8월 22일 도쿄증권거래소(TSE)에서 NTT 도코모를 밀어내고 시가 총액 1위로 등극했다.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16조 200억엔으로 지난 4년간 4% 증가했다. 최근 세계를 삼킨 거대한 신화, 렉서스의 명성으로 3년 후인 2008년에는 도요타자동차가 크라이슬러를 밀어내고 GM, 포드에 이어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빅3)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1980년대 미국시장에 진출한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왕국인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 GM, 포드 등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기업들이 도요타자동차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의 언론들은 도요타의 미국시장 잠식을 빗대서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 부르며 호들갑을 떨었다. 지방의 작은 방직기 공장에서 출발한 도요타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한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도요타자동차의 생산시스템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 세부 일정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9/25 1일차 (日)	08:55	인천국제공항 출발
	10:40	나고야국제공항 도착후 박람회장으로 이동 ★ EXPO 2005 AICHI JAPAN 참관 ★ ☞www-1.expo 2005.or.jp/kr/whataexpo/index.html
	12:00	박람회내 중식
	17:00	★ 세미나와 환영만찬 ★ 도요타자동차의 경영혁신과 마케팅 전략 -일본 최대 광고회사 (주)電通의 도요타 프로젝트 담당 임원
9/26 2일차 (月)	09:00	조식 후 ★ 관련기업체 방문1 ★ ☞도요타자동차 방문 및 시찰 : 도요타회관, 모토마치공장
	12:00	중식 후 ★ 관련기업체 방문 2 ★ ☞하기와라전기(주) : 제조와 상사의 기능을 가지는 종합 엘렉트로닉스 기업으로서 1948해의 창업이래 전자 응용, 솔루션, 디바이스 3개의 사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나고야의 대표적 기업 - 강연 : 하기와라 요시아키 사장 (예정) 도요타박물관 방문
	18:30	★ 만찬 및 WORKSHOP ★ 강연과 현장방문 소감과 벤치마킹 포인트를 참가자 토론형태로 진행
9/27 3일차 (火)	09:00	조식 후 ▶나고야지역 문화시찰 ~나고야성, 천수각, 아쓰다신궁
	16:00	~나고야 TV타워 전망대 시찰후 공항으로 이동
	18:30	중식 후 나고야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귀가 숙소)나고야 웨스턴 캐슬호텔

* 통역 및 진행 : 조우진 일본 아오모리공립대 경영경제학부 조교수(상학박사)



21세기 경쟁력은 자연활용법

박민찬 풍수지리 신안계물형학연구소 원장

희망이 가득한 21세기라고 말하고 싶다

"인류가 찾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며 그 행복은 운(運)이 있어야 하고 운은 자연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모든 이는 21세기를 기준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목적인바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문은 자연을 연구한 결론이다.

풍수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氣)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연을 활용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부, 명예, 화목,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면 인류에게 있어 진정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신라 말(1100년)부터 전수된 신안계 물형설(神眼系 物形說)의 풍수지리(道洗大師가 시조)의 핵심을 전수 받고 자연을 연구한 결과 대 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기초 학문이 발견되었으므로 인류 최초 최대 최후의 진리를 계발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1000년 전 <도선비기(道洗秘記)>가 백지로 전해온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자연에 다 있으니 자연을 찾아보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었다. 따라서 21세기는 인류가 자연을 계발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자연을 모르면 불행한 삶을 살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음(陰)·양(陽) 택(宅)의 풍수 즉, 자연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80% 자연의 운을 얻게 되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 질 수 있다는 연구 결론과 같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연이 가장 위대하기에 자연활용법을 계발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30만 달러 시대가 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는 자연활용법(풍수)을 명확히 몰라 위대한 자연을 1%도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세계에서 장묘문화(葬墓文化) 즉, 화장문화(火葬文化)가 발달한 나라가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길지의 음택(陰宅)을 활용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사후화장(死後火葬)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영국 학자들은 행복한 유전자는 행복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物體)로써 기가 통관하여 음, 양의 기의 영향으로 그 자식에게 운명이 결정된다는 필자의 연구 결과와 같은 이치이다.

21세기 역사책임은 풍수인에게 있다.

인류는 현재까지 태어난 후의 학문만 하였다. 태어나기 전의 학문을 모르고 있기에 불행한 삶을 살수밖에 없었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었으며 미래를 몰라 인생을 실패하며 살고 있다. 또한 인류가 발생된 후 수

백만 학자가 평화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자연활용법을 몰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없다는 결론도 내리게 되었다.

필자의 자연 연구확인은 간단하다. 첫째는 운명(년, 월, 일, 시)과 삶의 과정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면 결론이 일치된다. 둘째는 음·양 택의 자연을 잘 활용한 사람은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을 잘못 이용한 만큼 불행하게 태어났다. 셋째는 결정된 운명도 현재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기에 운명은 자연과학이다.

운명이란 개인운명과 공동체 운명으로 나뉘는데

실례로 이회창 전 총재 대권 두 번 실패, 현대 고 정주영 회장 자손 흥사, 대우 김우중 회장 기업 도산, SK 최태원 회장 운명 불길, 노무현 대통령 당선 등 수백 회 개인운명을 예측하여 적중한바 있으며, 공동체 운명으로는 경복궁(청와대)은 살생(殺生)하는 흉터로 나라운명 불길과 정치로 나라발전 저해, 국회의사당 조그만 섬 형상으로 대국이 발전적 회의 장소로 부적절, 대우그룹 정문이 서북간 방향으로 난 것은 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망하는 곳, LG그룹도 정문이 서북간과 한강 물이 앞으로 흘러 내려가는 방향이라 불길 징조, 청계천 복원은 흉상으로 국가분열과 재앙예고 그리고 나라장래 불길, 현대자동차 준 명당으로 발전,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 자택명당과 그룹본사 길지로 큰 발전 등 개인 수백 회 예측 적중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전 이미 언론에 기사화 된 사실이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자연과 만물을 보고 어떻게 예측이 적중하는가? 나는 자연의 비밀을 밝혔으므로 자연을 활용한 만큼 결과가 있는 것이며, 자연은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우리가 밝혀야 할 과제

위 연구는 자연과 인간 유해의 감지감응이 부모와 자식간 감지감응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역학조사와 각계 학자들의 연구실험을 통하여 자연활용법을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인류 최초 천지 창조의 비밀은 밝혀냈으나 알아보는 이 없어 천지에 다시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자연을 활용할 줄 아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人間)



박민찬 원장

1954년 생 / 1983년 풍수지리 신안계 물형학 입문 / 도선대사 34대 후계자 지명 / (사)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운동협의회 홍보분과위원 / KBS, MBC, SBS, iTV 외 다수 방송출연 / 일요시사 외 기획연재 / 개인 및 공동체 운명 수백 회 예측 적중 / 풍수지리 신안계물형학연구소 및 한국발전연구소 (www.poongssoo.co.kr) 원장

글로 쓴 목표의 위력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요즘 기업마다 지식경영을 강조한다. 지식경영을 말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이란 인상을 줄 정도로 지식경영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 왜 그런가. 오늘날 기업의 본질은 지식을 창조하고 모으고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식경영의 핵심은 지식 공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식사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지식사회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회를 말하는 까닭이다.

지식은 전달형태에 따라 암묵지(暗黙知)와 명백지(明白知)로 나누어진다. 암묵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다. 반면에 명백지는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한 지식으로써 문자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지식사회의 성숙여부는 암묵지를 얼마만큼 명백지로 전환할 수 있는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

세계적 기업인 GE를 이끌었던 잭 웰치 전 회장은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종업원은 도적이거나 마찬가지다."면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지식공유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 기록하는 일이다. 말은 일회성이고 부정확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김부식, 김시습, 이율곡, 이순신, 허준, 정철, 정약용 등 모두가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난중일기를 기록하여 기록문화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 모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등 역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글과 함께 그 이름도 남아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우리 속담도 기록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후진국에서는 주로 글보다는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기록을 중시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시골 면서기만 지내도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책을 펴낸다고 하지 않는가. 반면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고려자기는 왜 그 비법이 끊어졌을까. 장인들이 자신만의 암묵지로 간직해 오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비법도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목표의 결과는 기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목표를 정할 때 기록여부에 따라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어 흥미롭다. 미국에서 하버드 MBA과정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재학시절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 쓴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진 학생은 전체의 3%였고, 13%는 목표는 뚜렷했지만 글로 표시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졸업 후 수입이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던 3%는 나머지 97%의 평균수입의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반면에 목표만 있던 13%는 나머지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다. 목표와 글로 쓴 계획이,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글로 쓴 목표의 위력을 나타내 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목표를 글로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첫째, 목표를 향한 궤도 이탈을 방지해 준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 우리는 매일 매일 시간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직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라는 고백을 입에 물고 다닌다. 하물며 경영자는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겠는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는데 목표를 글로 써놓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망각하기 쉽다. 글로 쓴 목표가 궤도 위를 달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일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목표를 정하고 달성시한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추적하면 성취율은 당연히 높아진다. 막연한 목표는 불분명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분명한 결과를 창출하게 된다. 추적점검표는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셋째, 생각이 구체화되고 생각이 행동화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

목표를 글로 써 두었다는 단순한 일 자체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고 목표달성에 전념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표에 헌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목표에 대한 참고서이자 독촉장이다.

글로 된 목표를 검토해 볼 때마다 그 달성을 향해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자극을 받는다. 또한 목표를 바라만 보아도 참고가 되고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실천에 옮기도록 독촉하는 효과가 있어 긴장하도록 만들어 준다.

다섯째,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준다.

목표를 글로 써 둘 경우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목표들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목표를 막연하게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목표와 가치관 또는 목표와 목표 사이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글로 쓸 경우 그 모순이 명백해진다. 글로 쓴 목표가 있으면 이러한 모순들이 갈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일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

일곱째, 시각화와 다짐의 효과가 있다.

목표를 글로 가지고 있으면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각화 효과가 있어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제고시켜 준다.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놀라운 힘이 생성되는 것이다.

여덟째, 상호작용의 일반법칙이 있다.

목표를 글로 써두면 그 목표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 즉, 우리 자신이 얻고자 계획했던 정확한 보상을 얻게 된다.

끝으로 컴퓨터의 등장은 기록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컴퓨터는 기록의 용이성과 함께 공유가 무한정도로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적자생존, 즉 '적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다.

얼마 전에 일본인 사카토 켄지가 집필한 <메모의 기술>이란 책이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다.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한 내용이 다. 하기가 오랜 옛날부터 기록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총명불여 둔필(聰明不如鈍筆)이란 말이 대표적이다. '총명이 둔한 붓만 못하다'는 뜻이니 기록의 중요성을 함축한 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경영을 구축하는 방안의 하나로 '적자생존 운동'을 벌여보면 어떨까. 암묵지를 명백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자. 자신이 하는 일부터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자. 성공과정도 실패과정도 기록으로 남기면 지식경영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개인목표와 업무목표도 글로 정리해 보도록 유도하자. 글로 쓴 목표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人間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나는 동서양의 경제학자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다. 그런데 인상적인 사실은 영국의 19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국회의원이 되어 현실참여를 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리카도(David Ricardo), 손턴(Henry Thornton), 벤담(Jeremy Bentham) 그리고 밀(John Mill)은 모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 나라, 영국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아마 지금 같으면, 이들 중 어느 하나도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우선 이런 인물이 아예 정계에 없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 민주주의는 일종의 엘리트 민주주의였고, 국회의원이라면 일정한 재산과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성들에게는 물론 참정권조차 없었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국가주의(Nationalism)의 이데올로기가 크게 대두하여 일반국민의 정치적인 세력이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20세기초부터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일반민중이 정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는 이제 대중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 엘리트가 누렸던 여러 가지 권위가 점차 없어졌고, 의회민주주의의 전성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그래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과거의 엘리트 민주주의의 전통이 상당히 남아 있었다. 의회에는 풀브라이트(W. Fulbright)나 레이번(S. Rayburn) 같은 거물 의원들이 상·하원을 지배하고 있어 정치의 안정성과 의회의 지도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비롯해 대중매체들이 정치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는 점차 포퓰리즘(Populism)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다수의 지배(Majority Rule)'와 아울러 '소수의 권리(Minority Right)', 또는 개인의 존중 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와는 달리, 다수면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정치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포퓰리즘이란 '다수의 전제(Tyranny of Majority)'이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가 퇴색하고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항상 '좌파'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좌파보다는 우파에 더 많다. 후진국에만 있고 선진국에는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에도 이것이 점차 득세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국민정서에 균형이 잡혀 있는 곳에는 득세할 수 없다. 그것은 국민감정에, 어떤 것에 대한 증오(憎惡), 어떤 종교에 대한 맹신(盲信), 어떤 정치이념에 대한 원리주의적인 맹종(盲從)이 있는 곳에 잘 자라는 극단주의(Extremism)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퇴색하고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추세, 이것이 오늘날 세계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 어딜 보아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라 하지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간 곳이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정치(Government in the name of the people)" 밖에 안 되는 포퓰리즘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질이 나빠지고 민주주의가 열화(劣化)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

소중한 꿈이 이어지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기운내, 당신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당신만한 여자가 없어
난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지?
누가 당신보고 이쯤마라 그러겠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이랑 상의하고 싶어져
사람들이 나보고 정말 장가 잘 갔대
뭘 먹어봐도 당신이 만든 게 제일 맛있어

.....

마음에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아내를 생기있게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들 오래 오래 건강하도록 - 교보생명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연속(2003,2004)최우수상 수상
- 2004년 노동부주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 2004년 감사원주관 자체감사 우수기관 선정
- 2005년 서울시정 기관표창
-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 2005년 제20회 '21세기대상' 수상(관리부문)



행복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드립니다!

인간미와 자연미가 어우러지는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SH공사는 새천년 생활공간 창조의 기업 이념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로 인간미, 자연미, 도시미, 현대미의 4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아파트를 무주택서민에게 공급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노력해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기기와 기술,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H VILLE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려는 기업의 의지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형상을 전체적인 이미지로 상징화한 SH공사의 아파트 브랜드입니다.